60억 '태양초 고추시장' 애물단지

영광, 진입로 공사 지연 속 舊시장 활성화

신구시장 양분화로 상인들 분란만 키워

영광군이 60억원을 들여 현대화를 완료한 '태양초 고추시장'이 9개월째 텅텅 빈 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사진〉

한때 전국 3대 고추시장으로 꼽혔던 태양초 고추시장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한 군은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3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04년부터 60억원을 투입해 영광군 신하리 태양초 고추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시작, 지난해 12월 개장했다. 시장에는 대형상징물, 가로등 21기, 165면 규모의 주차장, 화장실 2동, 비가림 시설 등이 들어섰으며, 현재 40여 명의 상인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완공이 늦어진데다 영광읍 구(舊) 우시장 인근에 조성된 구(舊) 고추시장이 활성화되면서 9개월째 외면을 받고 있다. 1995년 우시장이 빠져나가면서 구 고추시장의 침체를 우려한 군은 고추시장 현대화를 추진했고, 현재 태양초 고추시장 부지에 신(新) 시장을 조성하면서 구 시장 상인 대부분을 이주시켰다.

군은 현대화를 완료하고 나서 나머지 상인들을 신시장으로 이주시켜 통합된 고추시장을 형성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진입도로 공사가 늦어진데다 구 시장 인근에 5일 장이 들어서면서 구 시장이 다시 활성화됐고, 이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조성된 태양초 고추시장은 외면을 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군은 구 시장의 상인들을 신시장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이지만 구 시장 상인들이 부정적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결국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군의 노력은 오히려 시장을 양분시켰고 두 시장의 상인들 사이에 분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광군의회 한 의원은 "양분된 고추시장으로는 옛 명성을 되살리기는 커녕 모두 자멸할 상황"이라며 "양측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호박이 우리보다 커요"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어린이 몸통보다 크고 무게 50~70㎏에 이르는 슈퍼호박을 생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 제공〉

여수시민 "자전거사고 걱정없어요"

내년 전 주민 무료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

여수시의 모든 시민이 내년부터 무료 자전거보험 가입자가 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0만 여수시민 모두를 자전거보험에 무료 가입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 전 주민을 무료 자전거보험에 가입시킨 곳은 경남 창원, 대전, 경기도 이천 등 3~4곳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에서는 여수시가 '1호'로 기록된다. 시는 이미 이 보험에 가입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비춰 관련예산이 수 억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보장기간은 1년 365일 연중, 24시간이다. 또 연령·성별·직업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에 병을 앓았거나 현재 병을 앓는 사람 모두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만일 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법정(法定)상속인이 보험혜택을 승계받는다. 특히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벌금이나 방어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추진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면서 환경박람회를 추구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진도 울돌목 조류발전소, 조손 가정에 성금 전달

진도 울돌목 조류발전소(소장 명상진)는 조손가정 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조류발전소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진폐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군내면 죽전리 무의탁 독거노인 이막래(65) 할머니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남중학교 축구부에서 성실히 자신의 특기를 연마하고 있는 용인마을 조손가정 천혜강(13)군을 직접 방문, 6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명상진 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봉사 등을 통해 귀중한 인연을 맺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류발전소는 군내면 만금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 사회봉사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진도 울돌목 조류발전소는 지난 5월 정부가 (주)한국 동서발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 조류발전소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삼산천 복원

300억 들여 생태하천으로

해남군에 있는 삼산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하천 현황조사와 생태하천 복원 기본방향 등을 논의했다.

군은 삼산천 9.75km와 대흥사천 1.75km 등 모두 11.5km에 대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민 여가생활 및 문화공간 창출'을 목표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설정해 지구별로 특색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다음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부터 300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삼산천 복원사업이 끝나면 두륜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테마 여행코스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강진산 꽃은 '수출 효자'

국화·양란 등 맞춤 재배… 6억7천여만원 예상

강진산 화훼가 수출 효자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군은 칠량면 김성순(37)씨 등 화훼농가에서 재배된 절화 수국과 알스트로에메리아 등 화훼 4만 본이 최근 일본 수출길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출된 물량은 국화와 수국, 양란, 알스트로에메리아 등 10만여 본이며 앞으로 국화 16만본 등 20여만본이 더 수출될 전망이다. 수출액은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난 6억7천여만원이 예상된다.

특히 수국은 보라, 흰색, 연분홍 등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색상에 신선도가 높아 중국이나 네덜란드산(産)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일본에서는 결혼식 장식용이나 꽃꽂이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또 수국은 4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이어지며 저온성 작물로 난방비 부담이 거의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알스트로에메리아와 스타티세도 조화(造花) 같은 느낌과 화려함으로 일본과 네덜란드 등에서 수요가 크게 느는 인기 품종으로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 딱 들어맞는 저온성 꽃이다. 군은 이 같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지난 2006년부터 틈새 작목으로 화훼를 대표적 수출작목으로 육성해왔다.

군 관계자는 "화훼 재배농가의 수준과 여건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 보급하고 일본 등 수출 대상국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맞춤형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내년 의정비 동결

함평군의회

함평군의회는 30일 "최근 의원 간담회를 갖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2010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평군의회 내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578만원 등 총 2천898만원이 지급된다. 또 의정비 동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의 절차가 생략돼 그에 따른 예산도 아끼게 됐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무안군민, 목포·무안 통합 반대

무안사랑포럼 발족 반대운동 전개… 진통 예상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무안군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안사랑포럼(대표 정해전)은 지난 27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목포시·무안군 통합에 7만여 군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정 대표는 "승주군과 익산군 통합사례에서 보면 통합당시 약속했던 것은 허울뿐"이라며 "통합되면 목포에 예속돼 무안을 잃어버린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남악 신도청과 무안 국제공항 등 우리의 터전인 무안을 7만 군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자"고 말했다.

김석원 무안군 도의원은 "지난 9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무안·신안·목포 통합이 네번이나 실패했다"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또다시 통합을 논의한 것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무안군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호성 무안시승격 추진위원장, 박일상 무안군 번영회장, 나대길 무안군 이장협의회장, 이광숙 무안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포럼 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무안사랑포럼 관계자는 "무안반도 통합 반대 홍보물을 제작,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승주군 등의 견학을 통해 군민들의 통합반대 의지를 결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민준기자 jun@